

# 인품·덕·기술검비의 장 의제 전기기술사 고시원

## 취재·정리/홍보과

일관되게 한 분야를 고집, 전문성을 살려 교육시킴으로써 국내 제일을 추구하는 전문기술학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기술만을 습득하는 단순 기술인보다 인품과 덕 그리고 기술검비를 추구, 학원문화의 개혁을 부르짖는 곳이 있다.

좋은 환경,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고 있는 의제전기기술사고시원(원장:정용기)이 바로 그곳이다.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다더라도 인간됨됨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육의지로 훌륭한 환경과 탁월한 강사진을 갖추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술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에 실시했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시험에서 전체 11명의 합격자중 9명이 이 학원출신으로,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짐작케 한다.

정용기원장은 인격형성교육과 함께 단순한 객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눈술형에 적응토록 기초분야 학습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완벽한 기초가 있어야 어떠한 문제형태가 출제되더라도 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각 분야마다 교재를 채택, 이를 반복학습하고 수강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하우가 적용된 서브노트를 작성케 함으로써 남의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수강자 자신들도 정원장의 서브노트작성교육에 대해서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암기보다는 이해력이 중요한 기술사 시험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합격자 전원을 이 학원 출신으로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정원장은 이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꾸준한 자기개발과 탁월한 강사진, 좋은 환경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정원장의 목표는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의제학원이 기술사고시교육만을 고집하는 것은 여러계층 또는 여러분야를 다룰 경우 자칫 전문성 결여와 함께 결과적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불이익을 안겨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이 손대지 않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 전문화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결코 영리추구가 아닌 본연의 목적인 인간의 완성을 통한 전문화를 추구하자는 지론이다.

이 학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까지의 분야를 고수할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영역확대계획으로는 기사나 기능사가 아닌 소망, 승강기관리사부문으로 진출, 이 분야에서도 전문화를 이룩할 꿈을 자기고 있다.

특히 입학제도를 도입, 정규적인 교육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체계적인 과정을 통한 인력양성에 만전을 꾀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먹구구식 과정으로는 이 학원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리를 떠난 교육.

어떠한 교육기관이라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실천하고 교육과정에 직접 적용시키고 있



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의제학원이 영리추구를 떠나 교육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실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합격될 때까지 무료수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에게 모 든면에서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향상방안을 연구, 실시하고 있다.

수천여권에 달하는 각종 장서를 마련,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는 유인물의 지속적인 배포로 수강생들이 자료기근에 허덕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한차원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의제학원이지만 정책당국과 관련학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없을 수 없다고 한다.

먼저 자격소지자에 대한 인세티브제 확대 등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는 것이다.

현재의 실정에서는 우수한 기술자 확보는 큰 진전을 보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원도 선진·전문화를 위한 노력과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이 학원은 요구하고 있다.

무조건 수강생만을 많이 받아 기계적인 기능만을 익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인품개발을 우선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현재 학원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이 아쉽긴 하지만 학원 내부에서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정의

노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요건이 성숙된 후에 비로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는 풀이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우수한 기술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원의 역할은 지대해지고 있다. 학원전문화의 첨병으로 인품을 갖춘 기술인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제전기기술사고시원은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수진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맹장밑에 약졸 없다는 당연한 논리를 실천하고 있는 이 학원은 현재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강의에 있어서도 강사진들이 각각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있어 각분야 모두가 일류라는데 대해 수강생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학생들과 강사진, 그리고 원장 모두가 한단계 높은 기술계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적인 예로 합격후에 끈끈한 유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관련정보를 상호간에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소속사는 다를지라도 모두가 전기계에서 일하는 전문인으로서 기술계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같은 노력을 기술계에서도 기대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㉔